

NEPAL

네팔 전역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네팔정부의 만연한 부패와 불평등, 차별을 반대한 집회는 정치적 격변과 정부 붕괴로 이어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반발로 그치지 않고 부패와 권위주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역사적 정치변화의 순간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5일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네팔은 [넓은 정치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완전한 세대교체를 원하는 젊은세대]의 긴박한 정치적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기도”

- 지혜롭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 권력, 부패, 탐욕이 멈추고 공의가 회복되어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 정권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정과 일상이 보호되도록
- 네팔 교회가 깨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UUPG (미전도방언종족) SU렐민족을 찾아서

UUPG(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는 이름의 접착조차 거의 없고 선기계획도 없는, 가장 긴급한 최우선 선기대상을 말합니다. 네팔에는 36개의 UUPG 종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SU렐종족을 만나기 위해 신선기사와 동역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네팔 사역자들과 함께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SU렐종족을 조사하며 이 지역을 향한 성령님의 일들이 가득 풀어지길, 이

종족의 닫힌 문들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통로의 시간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출발하는 날까지도 정보가 거의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차로 10시간을 달려 이동해 인터넷도 안되고 현지 사역자들도 처음 가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갈래길에서 방향을 잃을 때마다 사람이 흔히 다닐만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보며 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SU렐종족이 사는 마을에 도착해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니 SU렐종족이 사용하는 SU렐어가 있으나, 현재 어른들만 사용하고 젊은 세대들을 거의 모른다고 합니다.

SU렐종족은 318명, 지금 찾아온 수리마을에만 25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타깝게도 믿는 자는 0명, 인도에서 건너온 이단 씨짜이가 15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음날, SU렐 종족의 제일 어르신을 만났고 종족의 기원과 특별한 종교의식에 대해 질문했을 때, 자신이 바로 집례하는 ‘낙소(무당)’ 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함께 가신 선생님께서 같은 연배셔서 죽음을 준비해야 함과 구원, 영생, 예수님에 대해 나누셨는데 막상 종교지도자인 어르신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른다면 이전에 인도에서 예수에 대해 듣고 마더테레사를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님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길 기도해 보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길 원하셨고, 함께 어르신과 그의 가족, SU렐종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SU렐종족을 만나 비움의 접촉점을 찾아보길 원

했는데, 더 나아가 종족의 어르신이자 종교지도자인 무당을 만나 비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세대 안에 사라질 수도 있는 작은 종족이지만, 동시에 한 세대 안에 모두가 비음을 들을 수도 있는 소망의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모두가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어서라도 가서 전하고 싶다' 는 고백은 우리의 열심히 아니라,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불투명했던 길이 점점 투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여신 길은 순종 속에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정탐과 만남 가운데 '평안의 사람' 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에서 실제적인 길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로 함께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ASUA

이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온 공부방 페인트 작업을 위해 러수아에 다녀왔습니다. 반지하라 벽에 곰팡이가 피어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하여 장소도 물색해 보았으나 당장 갈만한 곳을 찾을 수 없어 기존 공부방에 페인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들을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교사강습회 - 다음세대 사역

작년 하반기부터 다른 지역에서 작은 교회들이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배워서 교회 아이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두 지역에서 각각 교사강습회를 진행하게 되었고, 네표 현지인을 교사로 세워 말씀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교사들이 잘 준비된 모습을 보니 앞으로 이땅에 세워질 다음 세대들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참여할 수 없는 지방 교회들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포교회에 선한 생명력이 일어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교사들이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아이들 역시 이 말씀의 씨앗들이 좋은 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KUWA

오픈하고 처음엔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경험이 없다보니 실수들도 많고, 피곤과 기름냄새 때문인지 입맛이 없어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한두달 손님이 거의 없어 긴장된 날들을 보내기도 하고, 기도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바퀴가 터지고 바퀴 휠과 차 밑부분을 다 교체해야 하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근심보다 KUWA를 향한 약속을 붙들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영원한 생명과 회복, 은혜의 자리였던 우물, 네포어로 KUWA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풀어지기 시작할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저희 KUWA는 함께 일하는 네포 두 자매가 있습니다. 리따는 결혼을 하고 교훈도 잘 다니는

기독교인이고, 니마는 20대의 믿지 않는 어린친구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니마가 일하다가 주방에서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생리통이 심해서 우는가보다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8살 때 친척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를 하는 날이면 배가 아파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면 영영 울다가 쇼크처럼 경련을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8살 아이가 우는 것 같아 너무 불쌍해 부둥켜 안고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네포에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다 개인의 부끄러울 수 있는 사정을 조심스럽게 오픈한 이유는 먼저는 이 편지를 읽는 분들을 신뢰하고, 이 친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알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KUWA를 향한 약속이 먼저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풀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 가게에서 성기를 읽다가 한 구절씩 니마에게 네포어로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함께 읽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따라 니마가 비음을 알고 회복과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릴 일>

송구하지만 한가지 나누고 싶은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게에서 가정용 작은 추출기로 아메리카노만 제공했는데, 네포 사람들은 워낙 커피를 진하게 마시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때에 손님들이 다른 아이스 커피 음료들을 찾으셔서 에스프레소 기계가 절실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엔 라떼를 찾으시는 손님에게 아메리카노에 라떼를 만들어 대접했다가 바로 나가시는 난감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포는 기계 수입관세가 높아 가격이 많이 비싸 구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비용은 최소 700만원 이상입니다. 중고도 알아보았으나 대부분 기계가 잘 관리되지 않아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포에는 봄이 오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쌀쌀합니다. 한국도 날씨가 점점 풀어지고 있을텐데 환절기에 건강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포에서 신민철, 함은진, 신시하 드립니다.